

JIST 설립 첫단추부터 빼끗

<제주국제과학기술원>

행안부·교육부·예산처 등 “제주 설립, 신중 검토” 의견
학령인구 감소·재정 부담·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제기
민선 9기 핵심 공약…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난항 예상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제주과기원) 설립이 첫 단계인 입법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과기원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과기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이미 대전·광주·대구·울산에 과학기술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과기원을 추가 설립할 경우 인제 양성 역량 분산으로 인한 연구·교육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또 제주과기원 설립과 각종 특례 부여에는 재정 부담이 수반되고, 지역·대학 간 형평성 및 출입국 특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국제학교 정원 외·우선 입학,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주 무사증제도에 관광·통과 목적 외에 교육·연구 목적을 추가해 제주과기원 관련 외국인에 대한 별도 체류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제주과기원 졸업 외국인에 대해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창업·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지역·기관의 졸업자에 대해 특별체류자격 부여는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토보고서는 “제주과기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설립법을 제정해 다른 과학기술원과의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에는 설립의 기본 방향과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4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33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청정 제주 보존하고 후손에 넘겨줘야”

도·한라일보 공동주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도자원봉사센터 ‘대상’… 3개 기관단체·개인 5명 수상

환경 보전에 헌신한 개인과 기관·단체가 한라환경대상을 받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2026 제33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24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한라환경대상은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 UCC 공모전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3개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 수상자 명단 12면

김한욱 한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라일보가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라환경대상을 시작한 지 33년이 됐으며 그동안 제

주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예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 돌아갔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는 2007년 개소 이래 다양한 환경 관련 자원봉사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오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도민·관광객·기업·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다같이 즐자 제주 한바퀴’와 제주 플로깅 플랫폼 운영, 버려지는 우유팩 모으기

자원순환 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주 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전달됐다.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는 이유정(이호여촌계)씨가, 우수는 청주도시공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라환경지킴이상 최우수는 학교 부문에선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사 부문에선 임지은 교사(검바위초등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한라환경 UCC공모전 수상자는 일반 및 대학 부문 최우수는 한창민(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씨, 우수는 박희원(우체국금융개발원)씨에게 돌아갔고, 중등부 부문 최우수는 황주하(표선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상반기 6만5219건 심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안전신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전신문고로

통해 접수된 신고 6만5219건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분야의 우수 신고자와 기여자를 선정했다.

안전위험요소 개선 우수신고 분야는 10명에게 5만~30만원, 다수

안전신고 분야는 1~50위에 3만~5만원을 지급하며 안전신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 해안가 난간 파손, 다리 안전줄 훼손, 배전함 덮개 열림 등 방지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신고가 선정됐다. 오소범기자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 “시민의 삶 도움되는 시정 운영”

제35대 이상봉 제주시장이 24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시민결예, 민생 먼저’임을 강조했다.

이상봉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청년 도전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아동·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시 조성에 힘쓰겠다”

며 “발 빠르게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직접 살피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행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공직자들에 게도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을 당부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낡은 관행은 과감히 바꾸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협력하며, 예산을 꼼꼼히 살펴 그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통·주차, 쓰레기·환경, 주거·골목상권, 농어촌의 어려움, 청년 일자리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24일 취임한 이상봉 제주시장이 취임사에서 시정운영 가치를 밝히고 있다. 제주시 제공

각오를 내비쳤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공직자를 대표한 제주시 공직자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함께 하는 공동 선언도 이뤄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정부, 4·3피해보상금 변칙 운용 빈축… 2면 / 실종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4면

SAMSUNG



히트펌프, 당연히 삼성이 답입니다 삼성 EHS 히트펌프 보일러

제주도민을 위해 준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역대급 70% 보조금
정부지원사업 선정
70% 보조금 특별 지원



난방비 절감 극대화
보일러 대비
약 4배 이상의 난방 효율
(SCOP 3.78)



2026년 3관왕 쾌거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
2026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2026 올해의 녹색상품상

☎ 상담 및 구입 문의처 064-712-6777(제주도 전용) / 1588-3536(전국)

*온라인 접수는 좌하단 QR코드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로 작성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정부 지원 사업] *제주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시설(최소 3kW 이상)을 설치하여 사용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단독 주택의 소유주(세대주)에 한하여 정부 지원금 1억원 이내 금액의 70% 지원 (히트펌프, 부속 설비, 설치비 포함)(단, 가계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난방 효율) *2년 품질보증 기간(연장형인 단종 제품 중적으로 3년, 가설) 난방 시용, 1월 하순 최저 기온 5℃~10℃, 10월간 총량 340kWh(보일러) (SCOP 3.78)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난방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계절동안 공급한 난방 에너지를 소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 단위: 히트펌프 보일러 15kW, SCOP 중등난방 (55℃) 기준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